

‘판춘문예’의 서사전략\*  
-네이트판 일상 서사의 서사전략과  
독자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구자준\*\*

1. 들어가며-인터넷 문학과 ‘판춘문예’
2. 네이트판의 구조-익명성을 통한 일상의 서사화
3. 수기와 소설 사이-진실성 혹은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판춘문예’의 서사전략
4. ‘판춘문예’의 수용 양상
5. 나가며-‘판춘문예’의 진실성과 진정성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온 인터넷 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미 인터넷 문학의 존재 양태에 대한 탐구로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터넷 문학에 대한 논의가 온라인에서 생산되는 서사에 대한 탐구 전반을 포괄하기는 어렵다. 인터넷 문학이라는 개념으로는 기존의 ‘문학’과는 변별되는, 스스로의 문학성을 명확히 자각하지 않는 다양한 형식의 일상적·고백적 글쓰기를 조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그동안 게시글의 ‘조작’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던, 그렇기에 문학적 탐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었던 온라인의 고백적 글쓰기에 나타나는 서사 전략과 독

\* 이 논문은 2017년 8월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이 개최한 제13회 언어·문학·문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자의 수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일상에 관한 고백적 글쓰기가 중점적으로 게시되는 대표적 커뮤니티인 네이버판의 인기 게시물들을 분석하였다. 이 글들은 사연 조작에 대한 독자들의 의심으로 인해 흔히 '판춘문예'라고도 불리는데, 서술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게시자와 서사의 진정성을 보여주며 의혹을 불식시키려 노력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게시글이 얼마만큼의 진실을 담보하는지는 끝끝내 증명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조작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면서도 서사가 제기하는 화제에 대한 토론에 뛰어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글의 진실성 보다는 글의 재미나 글이 자아내는 공분, 그 글로 인해 열리는 토론과 성토의 공간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처럼 '판춘문예'라고 불리는 글쓰기는 자연스럽게 수필과 소설의 사이 범주에 자리잡았으며, 오프라인에서의 논의와 달리 글의 조작 여부는 작성자나 독자 모두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독자들은 글의 조작 여부를 끊임없이 의심하지만, 그러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글이 유발하는 도덕적·윤리적 토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반응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판춘문예'는 2000년대 이후의 웹에서 서사가 생산·소비되는 다양한 양상을 제시하는, 서사에 관한 유저들의 모순된 욕망들을 보여주는 조감도이기도 하다.

(주제어: 네이버판, 서사전략, 인터넷 문학, 진정성, 판춘문예)

## 1. 들어가며 – 인터넷 문학과 ‘판춘문예’

2000년대 이후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온 인터넷 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미 인터넷 문학<sup>1)</sup>의 다양한 존재 양태에 대한 탐구로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한 인터넷 문학의 즉각적 소비는 우리의 일상에서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고 발전된 인터넷 문학은 TV나 영화와 같은 기성 미디어로도 변환되어 활발히 유통·소비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기성 문학과는 다른 형태의 창작과 소비가 출현하고 있는 웹소설 등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에 대한 탐구와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종종 플랫폼 그 자체가 유발하는 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한다.<sup>2)</sup> 인터넷 문학은 존재하는 양태 그 자체로 기존의 ‘문학성’에 대한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

1) 인터넷 문학이라는 용어에 비해 디지털 문학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엄격한 미학적 조건들을 상기시킨다. 예컨대 유현주는 디지털 문학이 “단순히 ‘디지털화된 문학’이 아니며, 생산과 재현, 수용 조건이 디지털 매체를 떠나서는 가능하지 않은 문학”이라고 설명하고 디지털 문학의 특징으로 상호텍스트성, 상호작용성, 상호매체성 등을 언급한다. 유현주, 『텍스트,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예학』, 문학동네, 2017, 11-19쪽. 그러나 현재 한국의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소설 혹은 시의 경우 대부분 디지털 문학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성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박인성이 말한 것과 같이 “‘인터넷 소설’의 실상이 인터넷을 매체로 하는 것일 뿐, 종래의 ‘종이소설’과의 큰 형식적 변별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인성, 『인터넷 소설의 작은 역사』, 『한국문학연구』 제43집, 2012, 95-96쪽. 그렇기에 이 글에서는 웹에서 보다 일상화된 문학적 실천 전반을 포괄하는 데에는 인터넷 문학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인터넷 문학과 디지털 문학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2) 임대근, 『한국에서 ‘트위터 문학’은 가능한가? – 뉴미디어의 등장과 새로운 문학의 출현에 관한 시론』, 『외국문학연구』 제53호, 2014, 285-301쪽.

물론 ‘문학’이라는 형식을 추구하며 ‘문학성’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사례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와 같은 공간에서는 계속해서 기성 문학의 경계를 침식하는 새로운 글쓰기들이 생성되고 있는 중이다. 예컨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 관한 네티즌들의 ‘고백적 글쓰기’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일상다반사에 대한 토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흥미진진한 고백들은 종종 이웃 커뮤니티로까지 뿔뿔이 퍼져 나갈 정도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모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터넷 문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적 글쓰기’는 거의 언급되지 못했다. 이는 대부분의 ‘고백적 글쓰기’가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적 형식을 명확히 추구하는 대신, 막연히 수필을 연상시키는 난잡한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상이 불분명한 인터넷 글쓰기라는 것에 더해, 한국 문학에서 수필이 놓여있는 모호한 위치가 겹쳐져 이러한 글쓰기에 대한 적극적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판춘문예’라는 비하적 호명을 통해서만, ‘고백적 글쓰기’는 문학과 희미한 연결성을 지니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판춘문예’는 네이트판과 신춘문예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인터넷 은어로, 고백적 글쓰기가 주로 게시되는 대표적 커뮤니티인 네이트판의 글들을 ‘소설(거짓)’이라고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인터넷에 게시되는 익명의 글쓰기라는 특성으로 인해 네이트판의 게시물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네이트판의 인기 게시물들은 항상 진위 논란에 시달리며, ‘판춘문예’라는 조롱 역시 온라인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판춘문예’를 수용하는 독자들이 사연의 조작으로 인해 고통받고만 있는가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들은 조작을 의심하면서도, 계

속해서 '판춘문예'를 찾고 흥미로운 게시물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펼'하여 퍼뜨리지 않는가? 어쩌면 독자들은 수필과 소설의 사이 범주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유형의 서사를 자기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법을 찾아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글쓰기에 서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출현하며, 또 독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서사를 수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탐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인터넷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의 논의는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에서도 결국은 기존의 '문학성'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또한 스스로의 문학성을 명확히 자각하지 않는 디지털 글쓰기의 다양한 실현 양태를 충분히 조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판춘문예'가 지닐 수 있는 문학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기보다는, 온라인의 각종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소비되고 있는 '판춘문예'의 서사전략 및 수용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일상에 관한 '고백적 글쓰기'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네이버의 인기 게시물 중 '판춘문예'라는 조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비되는 글들의 특징과 유저들의 수용 양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네이버 커뮤니티의 독특한 구조와 익명성이 일상의 서사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였고, 나아가 네이버에서 2011~2017년 월간/연간 베스트로 선정되었던 게시글 중에서도 특히 '사소한' 일상에 관한 서사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판춘문예'가 익명의 '사적' 일상에 관한 서사만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판춘문예'로 호명되는 글들 중에서는 특정한 기관이나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온라

인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파급력은 오히려 이런 고발 성격의 글들이 더 강한 편이다. 이런 유형의 글들은 상대적으로 조작 여부를 판명하기 쉬우며 제기하고 있는 문제 자체의 진위와 심각성에 집중하게 만든다.

반면 일상에 관한 '사소한' 불만을 토로하는 서사들은 대부분 외적 맥락을 통해 명확한 조작 여부를 판명하기 어렵다. 게시자 역시 문제의 공론화보다는 독자들의 호응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는 일상 서사의 게시자와 독자 모두로 하여금 게시된 서사 자체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게시자는 진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진실처럼 느껴지는 서사를 통해서만 독자를 끌어들이 수 있으며, 독자 역시 서술자의 태도나 서사의 개연성, 서술 상의 실수와 같은 서사 내적인 맥락을 통해 글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즉 네이트판의 게시물 중에서도 사소한 일상에 관한 고백들은 게시자(작가)가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서사전략을 구사하는지, 독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서사를 판별하고 수용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2. 네이트판의 구조-익명성을 통한 일상의 서사화

네이트판(pann.nate.com, 이하 '판')은 포털사이트 네이트 내에 위치한 여성 유저 중심의 커뮤니티이다. '판'에는 연령/성별/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게시판이 개설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공간은 '결시친'(결혼/시집/친정)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과 시집, 친정에 관해 이루어지는 유저들의 고백적 서술들이야말로 '판춘문예'라고 불리기도 하는 네이트판 특유의 독특한 서사 양식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판춘문예’라는 신조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sup>3)</sup> ‘판’의 인기 게시물 상당수는 커뮤니티 내외에서 조작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에서 사실과 거짓의 경계에 놓인 모호한 글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것은 커뮤니티의 독특한 구조에 기인한다. 가입 및 게시물 열람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대다수 ‘여초’ 중심 커뮤니티에 비해, 네이트판은 회원 가입 및 게시물 열람·작성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편이다. 유저들은 타인이 기존의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자신의 일상적 체험 및 관심사를 게시할 수 있다. 그중 많은 네티즌의 공감을 얻은 글은 실시간 베스트로 선정된 후 일간, 주간, 월간, 나아가 연간 베스트로 선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으로 이는 화자로 하여금 공개된 자리에서 토로하기 어려운 것들을 발설할 수 있도록 돕지만, 동시에 독자가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양면적인 것이다. 지속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친목이 형성되고 유저들이 명성을 얻는 대신 각각의 게시물이 얻는 인기만이 존재하는 커뮤니티의 구조는, 유저들이 보다 자극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한 일상의 서사를 토로(혹은 창작)하도록 부추기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판춘문예’는 네이트판을 대표하는 서사 양식으로 언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네이트판의 익명성은 상대적으로 더 인지되지 않는 익명성이라는

---

3) 네이트판에서는 아예 인터넷 소설을 게재하는 공간으로 ‘판춘문예’ 게시판을 신설하며 용어의 재정의와 이미지 변화를 함께 꾀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판춘문예의 의미는 변형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판춘문예’는 계속해서 익명의 게시물들이 온라인 공간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어떻게 저해하는가의 사례로 언급되어 왔을 뿐이다. 임광복, “네이트 판 ‘첫 만남’ 주제 판춘문예 진행”, 『파이낸셜뉴스』, 2013.2.25., <http://www.fnnews.com/news/201302250920588375?y> (접속일자-2018.1.20.)

점에서 다른 커뮤니티의 익명성과도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로그인한 유저들의 ‘고정닉’으로만 글을 남길 수 있다면, 네이트판에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고정닉’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는 ‘고정닉’만을 허용하는 대다수의 커뮤니티, 그리고 ‘고정닉’과 ‘유동닉’ 모두의 사용이 가능한 디씨와는 다른 네이트판만의 특성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네이트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익명성의 성격과 커뮤니티의 구조, 일상의 서사화 양상에 관해서는 그동안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예컨대 윤수진과 손동영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성이 커뮤니티 내의 동질성과 공감 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하며 익명성을 부정적으로만 본 기존의 시각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도 커뮤니티 간 익명성이 구현되는 양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sup>4)</sup>

네이트판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네이트판 ‘10대’ 게시판의 통신언어에 대해서는 조혜리가 분석한 바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도 서사의 양상이 규명되지는 못했다.<sup>5)</sup> 미즈넷의 이혼 이야기를 분석하는 조국현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고백적 글쓰기가 어떤 서사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규명하고 있는 편이다.<sup>6)</sup> 그러나 조국현의 연구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기에 네이트판의 서사에 대한 분석에

4) 윤수진·손동영, 「사회적 익명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의 공동체 신뢰도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동일성(perceived homophily)과 공감경험(empathy)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1권 제4호, 2014, 189-226쪽.

5) 조혜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청소년의 통신언어 사용 양상 연구: 네이트판 10대 게시판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81쪽.

6) 조국현, 「인터넷 일상서사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미즈넷’의 이혼 고민 이야기를 대상으로」, 『독어교육』 제56집, 2013, 259-287쪽.

는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서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상세한 구조 분석에도 불구하고 서사의 외적 맥락에 대한 논의는 불충분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조국현은 이혼 서사 이야기를 구조를 분석한 후 글의 목적을 “공감 얻기”와 “위로 받기”로 간명하게 정리하지만,<sup>7)</sup> 네티즌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베스트 게시물이 선정되는 대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은 사연에 대한 공감 혹은 위로만큼이나 다른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목적일 수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네이트판과 같이 개방적이면서도 익명성이 강조되는 커뮤니티의 경우,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많은 이들이 네이트판 글쓰기를 ‘판춘문예’라고 비판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네이트판 글쓰기에 대한 언론의 관심 역시 조작/진정성의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2017년 1월 ‘판춘문예’에 대해 언급한 조선일보 기사는 ‘주작’,<sup>8)</sup> ‘판춘문예로 불리는 거짓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게시글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조작은 때로 카톡 대화 조작 어플 등을 동원하여 이뤄지기도 하는데, 기사는 ‘판춘문예’의 문제로 “여성이나 장애인, 시댁처럼 어떤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전파하는 글이 많다”는 것, “온라인 게시글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sup>9)</sup> 여기서 ‘판춘문예’는 온라인 글쓰기를 통한 ‘소통’이 ‘혐오’와 ‘거짓

7) 조국현, 『인터넷 일상서사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미즈넷’의 이혼 고민 이야기를 대상으로』, 『독어교육』 제56집, 2013, 280쪽.

8) 조작을 의미하는 인터넷 은어. 조작이란 단어가 금지어로 지정된 인터넷 방송 채팅에서 대체어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일반화되었다.

9) 송혜진, “[Why] 오늘도 당신은 ‘판춘문예’에 낚이셨나요?”, 『조선일보』, 2017.1.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3/201701130153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3/2017011301535.html)(접속일자-2018.2.12.)

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드러내는 사례들로 언급될 뿐이다.

물론 기사의 문제의식은 대체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익명성이 지닌 문제만을 편향적으로 부각한다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나아가 '판춘문예'로 호명되는 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커뮤니티의 유저들에게 여전히 수용·소비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지도 않는다. 이는 '판춘문예'가 조작 논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시글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네이트판의 인기 게시물 중에는 기사의 사례와는 달리 조작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글들이 무수히 존재하며, 이런 글들 역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춘문예의 사례로 계속해서 회자된다. '판춘문예'는 명확한 조작이 이루어진 게시물에 대한 언급인 동시에, 동시에 항상 조작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네이트판 인기 게시물들을 가벼운 조롱과 의심을 담아 폭넓게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판춘문예'의 생산자와 소비자들 모두 '조작'의 문제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판'의 글들은 서사의 진실성 혹은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경우 글을 소비하는 유저들 역시 글의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글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판춘문예'의 조작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판춘문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네이트판의 '수기' 혹은 '소설'들은 어떻게 서사를 구축하고 있으며, 독자들은 이처럼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글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 3. 수기와 소설 사이

#### —진실성 혹은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판춘문예’의 서사전략

네이트판에서 베스트 게시물들의 성격을 일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독커들의 선택 명예의 전당’에 2016년 연간 베스트로 올라간 글들에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언급에서 좋아하는 아이들을 찬양하는 글, 취준생인 자신의 상황과 불만을 간략히 토로하는 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게시되어 있다. 또한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 떠오르는거 뭐있어??”나 “+추가) 다들 학교가기 싫은 이유 한가지씩 적고가자”와 같은 게시물과 같이 댓글로 사람들이 호응해주기를 기대하는 게시물이 많은 공감과 댓글을 바탕으로 베스트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글들은 일상의 공감을 바탕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점에서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의 인기글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 반면, 자신의 일상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소개, 고발과 하소연 등을 중심으로 하는 — 이른바 ‘판춘문예’로 불리기도 하는 — 고백적 글쓰기들은 네이트판 커뮤니티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낸다. “혼자 상황극 하면서 거짓말하는 여친 정확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답답합니다”, “돌잔치때도 시택 옷값 돌리나요—”, “사돈어른께도 전화를 해야합니까?”, “(후기 및 수정) 시어머니 말뚝 봐주세요”와 같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글은 일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주변인들의 비정상적 행태를 고발하는 형식을 지닌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네이트판이라는 커뮤니티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시물 모두가 유저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글의 사실 관계가 기술된 방식과 의도에 따라 ‘판춘문예’로 호명될 수 있는 글을 크게 세 분류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독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관계를 적시한 고발성 게시물이다. 이러한 글은 폭로를 통한 공론화의 의도가 분명하며, 종종 언론사의 기사 등을 통해 파장이 오프라인까지 확산되기도 한다. 게시자는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를 기술하는 한편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나 사진, 영상 등을 함께 첨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독자 역시 폭로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분노하는 동시에 폭로의 진실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다. 사실 이러한 유형은 일반적으로 ‘판춘문예’로 분류되지 않으며, 이 글들이 ‘판춘문예’로 호명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때일 뿐이다.

두 번째,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글의 반대편에는 의도적인 ‘조작’이 분명히 드러나는 글들이 있다. 애초에 진지한 의도로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글의 전개 과정에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선명히 드러나는 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컨대 현재 원글은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폭력적인 아내에 의해 허벅지에 30cm 자가 박힘”과 같은 게시물은 상식을 넘어선 서사와 어설픈 합성 사진으로 인해 처음부터 많은 의심을 받았으며, 네이트판 바깥의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판춘문예’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경향을 보였다.<sup>10)</sup>

그리고 세 번째, 진지한 고발과 뻔한 조작 사이에는 진실성에 대해 분명한 논박을 하기 어려운 — 혹은 글의 사실 유무 자체가 별다른 사회적

10) 원 게시글에서는 “아내분이 진짜 고수이신가봐요 살가죽 근육 혈관 뼈 그 무엇 하나도 다치게 하지 않고 자를 쪼갬다니... 무협소설에서도 이런 수준의 무공은 본 적이 없습니다.”와 같이 게시자를 비꼬는 댓글이 베플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글이 다른 커뮤니티에 ‘뽀’되어 게시된 글에서도 원 게시물 작성자와 서사를 조롱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혐] 오늘의 판춘문예”, 2016.9.8, <http://www.dogdrip.net/107105800> (접속일자-2018.2.12.)

의미를 지니지 않는—무수한 글들이 존재한다. 이런 글들 역시 ‘판춘문예’라고 조롱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글의 모호성으로 인해, 조작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글들에 비하면 이 유형의 글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게시자의 전략과 독자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글의 대다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고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개인적 관계에서의 사소한 일화에 대한 서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게시판의 익명적 성격으로 인해 사연의 진위규명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세 번째 유형의 글에서는 게시자가 글의 진실성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 구사하는 다양한 전략이 나타난다.

“전설의 짝꿍이남” 등의 제목으로 여러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기도 했던 “잔돈 안주는 거지같은 남자친구”<sup>11)</sup>라는 글은 일상 서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판춘문예’의 모범적인 전형을 보여준다. 이 글의 필자는 간단히 자신과 문제적 인물(필자의 남자친구)를 소개한 다음, 남자친구로 인해 겪은 황당한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서사를 전개한다. 필자가 고발하는 것은 필자 자신이 쓰고 남은 잔돈을 마치 자기 것처럼 챙기는 남자친구의 기행인데, 텍스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남자친구가 필자의 잔돈을 챙긴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일화들은 글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사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저는 23살 남자친구는 29살인데요  
각자 회사다니는 평범한 커플이에요  
만난지는 2개월 정도 됐었구요  
처음엔 몇 백원 정도여서 그냥 좀 그러네 했는데

11) “추가: 잔돈 안주는 거지같은 남자친구”, 2013.8.20,  
<http://pann.nate.com/b319054075> (접속일자-2018.2.12.)

요즘엔 몇 천원까지 주머니에 넣네요  
(…중략…)  
저번주 주말 남자친구랑 만났어요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해서 둘다 굶고 나왔죠  
머 먹을까 하고 돌아다니는데 길에서 닭강정을 팔길래 그거 한컵 먹자고 해서  
기다렸어요  
두 개 해서 4천원이라길래 남자친구가 현금 있어? 해서 응 하고 만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서 계산하고 쓱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아 또 시작이구나 하고 일단 넘어갔어요  
닭강정 먹으면서 걷다가 레몬을 갈아서 파는 가판대가 있어서  
하나사서 나눠 먹자 했어요 근데 또 길거리라 카드가 안되니  
지갑을 열고 현금을 꺼냈는데 또 남자친구가 쥐 내가 낼게 하길래  
아 맞다 아까 닭강정계산하고 남은돈 오빠가 챙겼자나 그걸로 내  
하고서 다시 돈을 집어 넣었더니 남자친구가 아 맞다 까먹었네 하고선 주머니  
에서 돈을 꺼내서  
계산을 하더니 그 잔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 돈은 제껴짱아요? 슬슬 저도 유치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어지는 부분에서도 필자는 계속해서 잔돈을 챙기고자 하는 남자친구의 시도와 필자 자신의 견제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게시물이 독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자, 필자는 후기를 통해 사건 당일 이후까지 계속된 남자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공유하고 남자친구와 주고받았던 문자 대화 등을 캡처하여 올리는 방식으로 글의 흥미와 신빙성을 높이고자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문자/카톡대화 역시 여러 방법을 통해 조작이 가능하므로 글의 진실 여부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자들은 대화의 양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자/카톡 대화를 캡처 게시하여 글의 신뢰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한편, 이를 독자의 흥미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시각적 자료로도 활용하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필자의 해명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본문’의 서술만으로는 독자의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느꼈을 때 서술자는 아래의 사례들과 같이 본문 앞에 설명을 추가하여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하고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려 시도한다.

(1) 자작이라시는분들 많은데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ㅜㅜ 판에 올라오는 글들 보며 지금까지 에이 설마. 자작 아냐?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당하고 나니 그 글들이 다 진실로 느껴지더라구요.  
6살로 계속 논란(?)이 일어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 아직 결혼한 친구가 많이 없어서 이제 막 6살난 우리 조카 또래로 보이길래 6살이라고 적은거예요!! 기준이 저희 조카밖에 없어서 정확한 나이는 저도 모르겠어요...<sup>12)</sup>

(2) 그리고 제 글은 자작이 아닙니다..ㅠㅠ.. 누가 자기 인생 얘기 갖고 자작을 하나요.  
아버지 찾으려고 뎀 건 등본이 아니라 초본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찾으려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초본인지 뭐였는지 떼보면 주소가 나온대서 주민센터 가서 떼 본 거구요.. 그 주소로 편지 두 통 보내고 나니 연락이 닿아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국가장학금은 제가 입학한 2009년도부터 받았습니니다.  
그 이후부터 생겼다 하시는 분겐 할 말이 없네요;<sup>13)</sup>

(1)은 마트 계산대에서 게시자가 가져온 음식을 마음대로 가져가 버렸던 아이와 그런 아이의 행동을 꾸짖지 않았던 ‘개념 없는’ 아이 엄마의 행동을 비난하는 글이다. 글이 많은 화제가 되면서 게시된 내용의 진위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늘어나자, 게시자는 후기를 추가하여 왜

12) “+ 마트가서 무개념 엄마를 봤네요”, 2016.8.11, <http://m.pann.nate.com/talk/333008433> (접속일자-2018.2.12.)

13) “+25살 여자의 지겨운 인생 얘기 들어주실래요..”, 2014.1.13, <http://m.pann.nate.com/talk/320649243> (접속일자-2018.2.12.)

자신이 아이의 나이를 6살이라고 서술했는지를 해명하는 모습을 보인다. (2)의 글에서도 게시자는 후기를 통해 게시자와 글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한편,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며 글의 전반적인 서술에는 큰 문제가 없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네이트판의 일상 서사에서는 글의 재미만큼이나, 글의 진실성에 의문을 표하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게시자의 다양한 전략이 중요하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게시자의 성실성, 그리고 서사의 핏진성과 완결성이다. 우선 게시자는 구체적인 정보는 가리더라도 기술된 글에는 부합하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자신이 관심만을 바라고 일회적으로 자극적 소재를 던져주는 ‘어그로’ 유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독자들의 반응에 지속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게시자는 ‘후기’나 ‘본문 추가’ 등의 형식을 통해 첫 글을 게시한 이후 상황에 대해 보고하거나, 댓글을 통해 제기된 조작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며 독자의 흥미를 충족시키고 글의 진정성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한다.

또한 서사는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는 경우에도 핏진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필자가 고발하고자 하는 사례가 아무리 극단적이라도 실제로 생겨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필자와 문제적 인물간의 관계, 사건이 일어난 정황에 대한 묘사는 충분히 그럴 법한 것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설과는 달리 반드시 유려한 서사적 흐름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수기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일화 위주의 분절적 서술이 자연스럽게 허용된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한 매끄러운 전개는 독자들에게 오히려 인위적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대부분의 글은 글을 게시하게 된 중심 사건을 바탕으로 서술되며, 중심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일화들이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게시글이 실제 있었던 일을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 글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첨부한 카톡·문자 대화의 양상이나 해명이 오히려 작위적으로 보일 여지도 충분하며, 후기 등을 통한 해명 역시 정황에 대한 증거만을 제시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게시자가 명확한 사실 관계를 첨부하는 것도, 독자가 제시된 증거들을 모두 검증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되는 글이 전적으로 진실인지 아닌지는 어쩌면 독자에게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진실성에 대한 의문은 끝내 해소되지 못하지만, 서사의 진정성이 강조되면서 문제가 봉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게시자의 태도와 서술의 핏진성, 서사의 도덕적 함의에 대한 공방을 통해 검증되는 것은, 결국 게시된 일상 서사가 ‘판’이라는 커뮤니티의 양식과 문법, 이용하는 유저의 성향과 얼마나 부합하는가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진정성이 어디까지나 ‘판’ 내부에서 합의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연령과 성별, 취향에 따라 파편화된 (도덕적·윤리적 지향마저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현재의 온라인 커뮤니티 지형에서, 판에서 받아들여지는 진정성이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매끄럽게 수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판에 게시된 글에 대한 웹 전반의 수용 양상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 4. ‘판춘문예’의 수용 양상

2016년 게시된 “시어머니 굶고있는데 혼자 초밥 시켜먹는 여자”라는 글은 게시자의 독단적인 태도와 고압적인 서술로 인해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글이다.<sup>14)</sup> 이 글은 ‘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에도 소개되어 다소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혼자 초밥 시켜먹고 서재에 들어가 책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화가나서 방에 드러누워 계시구요.

합가하기 싫다는거 간신히 설득해서 말이 통하나 했더니 저리 시위합니다.

둘이 살때는 주말 점심 제가 하기로했는데 어머니가 옛날 분이셔서 아들 음식 하는거

당신 보기 안좋으시다 했다고 저립니다.

주방에서 아들 내보내고 며느리 좀 불렀다고 딱 서재에 틀어박히더니 초밥 시켜놓고 책이나 봅니다.

시어머니며 남편이며 제 눈치보느라 이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있는게 눈에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수가 있을까요….

(…중략…)

와이프가 직접 니눈으로 댓글 보라고 와이프 아이디로 씁니다.

내일 중엔 보겠지요.

여성만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결시친’ 게시판에 다툰 아내의 아이디로 굳이 글을 게시했다는 점, 여성 유저가 많은 네이트판의 특성상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통해 자신의 태도에 대해 사람들의 동의를 구했다는 점 등은 이 글의 진실성을 상당히 의심하게

14) 2018년 1월 20일 현재 원 게시글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나, 원글을 그대로 캡처하여 게시된 글에는 사람들의 원글보다 훨씬 더 많은 400여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http://pan.nate.com/talk/329749885> (접속일자-2018.2.12.)

만드는 지점이다. 단지 화제를 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소재를 택해 ‘창작’한 글을 가장 이목을 끌 수 있는 ‘결시친’ 게시판에 올렸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폭력적인 아내에 의해 허벅지에 30cm 자가 박힘”과 같은 글과는 달리 이 글은 적어도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서사를 전개하거나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명확한 증거를 노출하지 않으며, 앞서 조작 논란이 일어났던 글에서 볼 수 있는 사실 관계의 착오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이는 글이 단지 조롱의 대상이 아닌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특히 판에서는 글의 조작 논란 여부를 둘러싼 논쟁 대신, 화자의 태도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바탕으로 한 열광적인 반응이 형성되었다. 글은 ‘판’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더쿠넷, 쪽빵카페, 에펠펜코리아, 가생이닷컴 등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는데, 판과는 달리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는 조작을 의심하는 네티즌이 출현한다. 이러한 의심의 대다수는 극단적인 사례를 꾸며냄으로써, 역으로 남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려는 ‘판’ 이용 네티즌의 조작이라는 추측에 기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 논란이 게시물과 관련된 논의의 주를 이루지는 않았다. 조작을 의심하는 댓글 역시, 조작 의혹만 제기하기보다는 게시글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판단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축구게임 커뮤니티인 에펌코리아(fmkkorea.com)에서는 남편이 제정신이면 이런 글을 쓸 수 없으니 조작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남편을 마마보이라고 비난하는 아래의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주작 아니냐? 남편새끼가 제정신이면 이글을 어떻게 쓰지 ㅋㅋㅋㅋ 불편한일 없게 하겠다고 설득해서 합가해놓고서 불편한일 잔뜩 만들어놓고 나는 잘못없는

데 와이프가 나쁜년 이지랄하고 있구만 ㅋㅋ 결혼해놓고 완전 마마보이 기질 그대로 가지고 사는듯. 어머니가 이거 하지말랬으니까 안하고 ㅋㅋㅋㅋ”<sup>15)</sup>

이처럼 글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유저들은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게시물이 유발하는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조작에 대한 의심과 서사에 대한 반응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이다. “뭘 주작이야 현실에서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일인데 ㅋㅋ”과 같은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작성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글이 제시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있을 법한’ 사례로 받아들여진다면 글은 자연스럽게 토론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의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반응과 논의는 조금씩 다르게 전개되는데, 이에 따라 조작에 대한 판단이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이 글의 경우 여초, 남초 커뮤니티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댓글이 원글의 게시자를 비판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아내도 잘한 것은 없다고 지적하는 양비론적 입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조작에 대한 의심 역시 보다 빈번하게 제기되는 편이다.<sup>16)</sup>

15) <http://www.fmkorea.com/401909475> (접속일자-2018.1.20.)

16) 여초사이트인 쪽방카페에서는 이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 약 70여개 달렸는데, 그중 글의 아내를 비판하는 댓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pid=aVeZ&flid=9Zdf&datanum=319699](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pid=aVeZ&flid=9Zdf&datanum=319699) (접속 일자-2018.2.12.) 반면 에phem코리아에서는 적은 비율이지만 아내에 대한 비판 혹은 양비론적 입장을 종종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런 입장은 조작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과 함께 제시되는 경향이 많다. “요즘 인터넷보면 주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튼 맞벌이, 평등시대라는 이름하에 부부가 무슨 손익 따지면서 사는 애들이 왜이리 많냐”고 지적하거나, “아들 놈도 잘못했지 난 며느리 행동도 이해못하겠”다고 주장하는 댓글이 이에 해당한다. <http://www.fmkorea.com/401909475> (접속일자-2018.2.12.)

한편으로는 조작을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글에 대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중적인 태도는 비단 이 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판춘문예'를 '판' 외부의 다른 커뮤니티에 소개하는 게시물들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태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네이트판에 처음 올라온 후 디지털카메라 커뮤니티 SLR클럽(slrlub.com)에 '뽐'되어 게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빠 여친이 오빠랑 연락하지 말래요.jpg”라는 글의 댓글에서도 “시어머니 굶고있는데 혼자 초밥 시켜먹는 여자”와 유사한 반응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글에 달린 대부분의 댓글은 조작을 의심하며 '판춘문예'를 언급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댓글들은 (게시자의 의도대로) 오빠의 여자 친구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하고 있으며, 조작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례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면 한국 여성들의 태도 일반을 비판하기도 한다.<sup>17)</sup> 여기서도 조작에 대한 의심과 게시글의 사건에 대한 평가는 분리되어 수행되지 않는 것이다.

남친이랑 사귀지 7개월 다되가는 26살 직장인 여자예요

오늘.. 아니 어제 제 생일이여서 남친이 제 회사로 데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웃도 신경써서 입었고 기대했던게 사실이에요..

제가 남친 생일때 케이크도 손수 만들고 레스토랑 예약도 해서 계산도 다 제가  
하고 선물도 따로 명품 벨트랑 넥타이 사줬거든요..

17) <http://www.slrlub.com/bbs/vx2.php?id=free&no=35500984> (접속일자-2018.2.12.)  
네이트판에 게시되었던 원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이라면 저런 여자와 결혼 했다면 정말 한가족 풍 비박산 나겠네요 ㄷㄷㄷㄷ” “ㅋㅋㅋㅋ 이게 진짜인가요? 진짜면 대박! ㅋㅋ자기 부모님 환갑때도 저렇거나요? —” “이런 비스무리한 글 올라올 때마다 판춘문예니 뭐니, 해서 덮어 버리려는 분들은... 같은 여자라서 감싸시는 거려나요? 저것보다 더 뜯기 넘치는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겪어본 저는”

비용은 30만원 들었구요... 당연히 저도 제 생일에 좋은곳에서 밥먹고 선물도 받고 데이트 하는줄 알았죠...

근데 정작 간곳은 감자탕집.. 저녁 시간이라 사람이 바글바글 하고 아저씨들이 술 먹고 떠드느라 귀가 멍~ 할정도로 시끄럽더라고요. 20살때 딱 한번 클럽을 갔었는데 그정도로 시끄러웠던거 같아요. 6천원짜리 해장국감자탕을 2개 시키고 음식이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거 같아요...

생일.. 나이들면 대수롭지 않아진 않지만.. 그래도 일년에 한번뿐이고 매일 같은 일상인데 하루정도는 특별하길 기대해도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정도는 욕심 아니잖아요...

‘판’에 게재된 “생일때 감자탕집 데려간 남친... 저 속물인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은 앞의 사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글의 진실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게시물이 다.<sup>18)</sup> 이 글은 다소 덜 극적으로 외화된 갈등을 언급하고 있는 대신 게시자의 내면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다. 아울러 게시자 스스로를 클럽과 같은 곳에는 거의 다녀본 적이 없고 남자친구의 생일에는 정성과 돈을 들여 선물할 줄도 아는 사람으로 언급하면서, 글의 신뢰도를 높이고 추후 있을지 모르는 비판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글 역시 조작 의혹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다. 게시자가 언급한 것처럼 30만원만으로 명품 벨트와 넥타이를 사기는 어렵다는 등 사실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아무리 핍진하게 서술했다고 해도 결국 남성을 욕하기 위한 조작 사연이 아니냐는 (앞의 사례와 유사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젠더 갈등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성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글의 흐름 자체가 서사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18) <http://pann.nate.com/talk/337524967> (접속일자-2018.1.20.)

즉 서사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자의 노력이 담보되는 경우, 글의 진정성을 둘러싼 독자들의 태도는 다소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가장 먼저 관찰되는 것은 ‘판’과 외부 커뮤니티 사이에 나타나는 반응의 편차이다.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취향과도 부합하는 글에서 필자의 성실성까지 드러나고 있다면, ‘판’ 내에서는 글의 진실성을 추궁하기보다는 글 자체에 대한 반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커뮤니티 내부의 독자들은 필자의 글이 사실인가보다는, 필자가 서술하고 있는 사례 및 필자의 태도에 보다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반면 이 사례가 ‘판’ 외부의 커뮤니티로 ‘뿔’ 되었을 때는, 필자와 독자 사이에 형성되었던 공감과 유대는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외부 커뮤니티의 독자들은 글의 사례가 단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혹은 특정한 세대나 성별 등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조작된 사례가 아닌가를 의심하며, ‘판’이라는 커뮤니티 자체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조작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면서도 독자들은 서사가 제기하는 화제에 대한 찬반 토론에 뛰어드는데, 이는 중요한 게 진실이 아니라 글의 재미나 글이 자아내는 공분, 그 글로 인해 열리는 토론과 성토의 공간 자체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러한 두 사례가 유발하는 토론에 참여하는 독자들 역시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자신들의 상식에 기대어 이에 대한 입장을 개진한다.<sup>19)</sup>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으로

19) 예컨대 남성 유저 중심의 게임 커뮤니티 포포스에서는 “직장인? 주작 / 레스토랑 지가 다 계산? 주작 / 명품벨트 벡타이? 주작 / 30만원이나 썼다? 주작” 혹은 “너무 대놓고 판춘문예네ㅋㅋㅋ” 등의 댓글과 같이, 별다른 근거 제시없이 막연히 여성 유저가 남성을 욕했다는 이유로 조작 사연이라 지적하는 댓글이 많았다. 하지만 조작을 의심하면서도 성실히 토론에 참여하는 유저 역시 나타났는데, 아래의 댓글은 다음과 같이 게시글의 남자친구를 비판한다. “주작이라 믿는다. 어떤놈이 여친생일인데 감자탕집에서 먹냐 /나도 옛날에 돈없어서 택배상하차해서 20만원벌어서 제대로해줬던기억이나네 / 호구

게시된 사연은 어떤 경우라도 조작 의혹을 피할 수 없기에, 오히려 명백히 사연이 조작이라는 것이 판명되지만 않으면 토론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태도가 일상화되어 있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령 게시자의 진정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라도 말이다.

## 5. 나가며 - ‘판춘문예’의 진실성과 진정성

‘판춘문예’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들은 일견 글의 진실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게시자와 서사를 통해 담보되는 진정성이다. 독자는 게시자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게시자가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독자들의 질문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지를 확인한다. 게시자 역시 흥미롭고 톰진하며 일상 서사의 문법에 맞는 글을 서술하기 위해 노력한다.

온라인의 일상 서사라는 ‘판춘문예’의 조건이 게시자와 독자 모두에게 진실성에 대한 요구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지도 모른다. 게시자가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더라도 글의 진실성은 끝끝내 확보될 수 없다. 독자-유저 역시 정확한 사실 관계 대신 사연이 충분히 그럴 법한 것으로 여겨지기 위한 조건들을 점검하며 글을 수용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서사의 톰진성과 더불어, 게시자의 태도와 서술의 내용이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되는 규범 및 가치관과 얼마나 일치하는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판’의 글이 ‘판’ 외부의 커뮤니티로 퍼져나가서 논란이 되었

---

가아나라 연인끼리 기념일에 그정도는 해주야되는거아니냐...”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pcid=aVeZ&fldid=9Zdf&clatanum=319699](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pcid=aVeZ&fldid=9Zdf&clatanum=319699)(접속일자-2018.1.20.)

을 때, '판' 내부에서 게시자와 독자가 공유할 수 있었던 서사의 진정성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판' 내부에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공방을 거친 서사조차 종종 다시금 조작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판'과 성별이나 이념적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커뮤니티일수록 이러한 괴리는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인다. 서술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오류 뿐만 아니라, '판'이라는 커뮤니티가 보이는 정치적 특성이 게시자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진정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일상 서사를 수필로 볼 것인지 '소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독자의 판단도 달라지게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상 서사가 '소설'(조작)이라고 비판하는 독자조차 마치 정말로 소설을 읽은 것처럼 글이 묘사하는 허구일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토론에 빠져든다는 점이다. 독자들은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 사연이 '있을 법 하게' 느껴진다면 자연스럽게 토론과 논쟁을 위한 불쏘시개로 삼는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힘든 정보로 가득한 웹에서, 유저들은 진실과 거짓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 서사를 일상적으로 생산·소비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때 글의 '진실성'은 매우 소극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 중요한 것은 글이 진실인가가 아니라, 글이 전적으로 허구가 아니라 — 어디 선가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도 모른다는 — 것이다.

이처럼 '판춘문예'는 웹에서 서사가 생산·소비되는 다양한 양상을 제시하는, 서사에 관한 유저들의 모순된 욕망들을 보여주는 조감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판춘문예'에 대한 분석 역시 네이트판이라는 커뮤니티, 혹은 네이트판 글쓰기의 특성에 대한 분석으로만 한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판춘문예'의 소비에서 볼 수 있는, 사실 관계에 느슨한 것 같은 면서도 서사의 진정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최소한의 진실성을 확보하려

는 유저의 이중적인 감각은 한국 웹의 서사 생산과 소비에서 일괄되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구어체의 서술을 허용하는 나무위키(<https://namu.wiki>)와 같은 서브컬처 위키가 한국에서 특히 성공할 수 있었던 것, 나무위키의 경우 심지어 ‘집단연구’라는 항목을 도입하여 네티즌들 ‘다수’의 인식을 반영하는 느슨한 서사들을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팩트’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까지 탐색하는 것은 ‘판춘문예’의 특성에 관해 논의하는 이 글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므로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네이트판 커뮤니티 게시글(<http://pann.nate.com>)

### 2. 논문과 단행본

박인성, 『인터넷 소설의 작은 역사』, 『한국문학연구』 제43집, 2012, 91-122쪽.

유현주, 『텍스트,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예학』, 문학동네, 2017.

윤수진·손동영, 『사회적 익명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의 공동체 신뢰도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동일성(perceived homophily)과 공감경험(empathy)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1권 제4호, 2014, 189-226쪽.

임대근, 『한국에서 '트위터 문학'은 가능한가?—뉴미디어의 등장과 새로운 문학의 출현에 관한 시론』, 『외국문학연구』 제53호, 2014, 285-301쪽.

조국현, 『인터넷 일상서사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미즈넷'의 이혼 고민 이야기를 대상으로』, 『독어교육』 제56집, 2013, 259-287쪽.

조혜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청소년의 통신언어 사용 양상 연구: 네이트판 10대 게시판판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81쪽.

**Abstract**

Narrative Strategies in the "Literary Contest in Pann Spring"  
—Focusing on the Strategies of Daily Narratives and the Acceptance Patterns  
of Readers on Nate Pann

Koo, Ja-Jun(Yonsei University)

A question about the possibilities of internet literature, which has been sporadically raised since the 2000s, is seemingly now moving to an inquiry into the existential aspects of internet literature. However, it is difficult for discussions about internet literature to encompass the overall inquiry into narratives produced online. The concept of internet literature has limitations when it comes to shedding light on daily and confessional writing of various forms. Such writing, while distinguished from the old "literature", is not clearly aware of its own literary value. Thus, this study sets out to analyze the acceptance patterns of confessional online writing amongst its readers, as well as its narrative strategies which used to attract attention only for "fabrication" and was thus not included in the category of literary inquiry.

For this purpose, the body of the research focused on popular postings on Nate Pann, one of the prominent communities where confessional writing about daily life happens intensively. Anonymous writers' confessional writing about daily life on Nate Pann is commonly called "Literary Contest in Pann Spring". The nickname was attributed to the suspicion that the anecdotes were fabricated to incite reader responses using provocative materials and development. As a result, the writers of "Literary Contest in Pann Spring" started using various methods to show their authenticity along with the authenticity of their narratives to demonstrate the validity of their stories. Despite these strategies, however, it can never be demonstrated to the end that each story depicts what actually happen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nonymous writing. Nonetheless, it does not seem important whether the stories are completely true or not. Readers jump into debates about the topics of narratives even in the middle of rising suspicion for fabrication, which reveals that what is important is not in fact the truth but the entertainment, public rage kindled, or the space itself

for discussion and denunciation created by the story.

The writing style of "Literary Contest in Pann Spring" exists somewhere between essays and novels. Unlike offline discussions, whether stories are fabricated or not does not seem very important to their writers and readers alike. Readers consistently raise suspicion of fabrication, but they still show active responses by jumping into moral and ethical discussions based on the stories. In this sense, the "Literary Contest in Pann Spring" offers a bird's-eye view of various patterns of narratives being produced and consumed on the web and the users' contradictory desires for them.

(Keywords: nate pann, narrative strategy, internet literature, authenticity, Literary Contest in Pann Spring)

논문투고일 : 2018년 1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2월 6일

수정완료일 : 2018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2월 13일